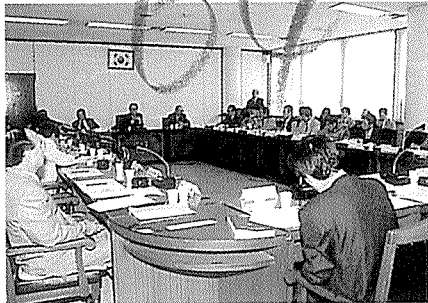


이사회 개최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9월10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보고사항과 진회회의록 승인, 부의안건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0회 이사회

제1호 의안 : 제31회 정기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제31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함.

- 일시 : 1996.10.29(화)10:00
- 장소 : 협회 대강당

제2호 의안:기술분야 등급인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기술분야 등급인정 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함

위원장-안길원 이사 (건축전산위원회 위원장)

위 원-백경국(건축전산위원회 위원), 회원부장, 건축부장, 총무부장, 기획부장, 사업부장

'96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및 전시회개막식 거행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96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식 및 전시회 개막식이 지난 9월 1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600년기념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협회 김규태 회장을 비롯해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 김영렬 서울경제신문사 사장 등 주최기관 기관장과 이충길 한국주택협회 회장, 허진석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 등 후원단체장, 건축관계인사, 수상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김규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예의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건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이들의 만남의 장인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우리 건축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한층 발돋움 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석 장관은 치사를 통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올해부터 대통령상으로 격상 되는 등 범국가적인 축제의 장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됐다」며 「이를통해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세계화를 이루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거행된 시상식에서 추경석 장관은 大賞으로 선정된 대법원청사의 설계자인 원도시건축의 윤승중 회원과 이내흔 현대건설 사장(시공자), 김문채 법원행정처 건설심의관(건축주)에게 대상 트로피와 건축물부작용 동판을 각각 수여하였다. 특히 설계자인 윤승중 회원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밖에 준공건축물부문 본상으로 선정된 수원 야외음악당의 5개 수상작의 건축사와 시공자, 건축주를 비롯해 우수상과 입선, 공로상 수상자들에게는 김규태 회장과 김영렬 사장이 시상자로 나서 트로피와 동판, 상패 등을 수여하였으며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에게도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었다. 한편 이들 수상작들은 지난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600년 기념관에 전시되어 많은 건축인과 학생, 일반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96년도 건축사자격시험에 총 2,761명 응시

지난달 22일 치러진 9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결과 응시원서 접수인원 3천3백32명 가운데 2천7백61명(특별전형응시자 8명 포함)이 시험에 응시, 약82%의 응시율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고등학교와 광남중·고등학교 등 2개 시험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 올해 건축사자격시험에서 일반전형응시자는 오전 50분간 건축법규와 오후 360분간 건축설계실기 시험을 치렀으며 특별전형응시자는 오전에 120분간 건축계획과 건축구조과목에 대한 객관식 선택형 시험을 치렀다. 시험결과는 오는 10월 31일에 발표되며 아래 전화번호의 자동응답전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700-1925:합격예정자 안내(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간)
 - 700-4123(기관코드:54):합격예정자 안내, 시험응시자격,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안내 함.
- ※700-4123 자동응답전화서비스의 정보이용료는 사용자 부담임.

건기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공포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7일 건설교통부령 제78호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하고 공포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총괄표 및 부실벌점 적용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날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의 경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감리전문회사의 경우 : 한국건설감리협회
3. 설계등 용역업자
 - 가.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의 경우 : 한국기술사회
 - 나. 측량업자로 등록한자의 경우 : 측량협회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의 경우 :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4. 건설업자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
5.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건설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영 제46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표 14의2 요건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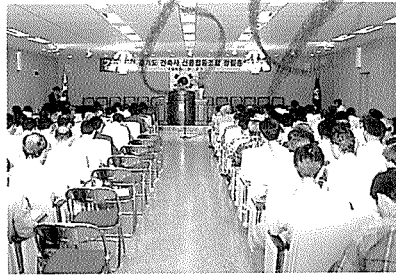
별표 8 제3호 나목중 '평균부실벌점'으로 하며, 당해년도의 평균부실벌점은 각 반기별 평균부실벌점을 합계하여 '평균한다'를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이 경우 1995

년 10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1반기로 본다'로 한다.

별표 8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당해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3년간의 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경기도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창립 총회개회



창립총회 광경

경기도건축사협회에서는 지난 8월23일 회원들의 숙원 사업인 경기도건축사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23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6층 대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대전건축사회 회관개관 기념식 및 회원작품전 열어

대전건축사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담아갈 회관의 개관과 함께 회원들의 역작들을 한데 모아 개관기념 행사 및 회원작품전을 갖는다. 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일시 : 개관기념식 1996.10.7(월)11:00

작품전 1996.10.7~10.12

장소 : 대전건축사회관 1층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22번지)

문의 : 대전건축사회

042-485-2813~7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관 이전

대전광역시건축사회(회장 류성희)가 지난 9월 21일 대전 중구 대흥동 회관에서 서구 둔산동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였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의 새회관은 둔산동내 건축

자재백화점과 상공회의소(경성큰마을)가 위치한 계룡로 중간지점에 자리해 있다. 회관이전에 따라 변경된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의 새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22

• 전화 : (042)485-2813~7

• 팩스 : (042)485-2818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장학금 지급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송기준)는 지난 13일 매년 계속사업으로 전개해온 모범 건축전공학도 격려를 위한 사회사업 참여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금 대상자는 인화대 설형진군 등 총 7개학교 14명으로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이번에 지급한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생 4명 각 1백만원, 전문대생 4명 각 60만원, 고등학생 6명 각 40만원 등 총 8백 8십만원이다.

전남건축사회, 도내 건축학도 장학금 지급



장학금 수여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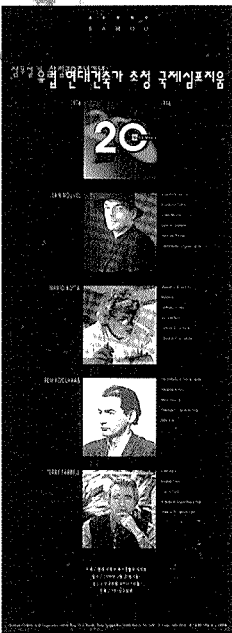
전남건축사회(회장 노상익)에서는 도내 건축학도를 양성하는 6개 전문대학과 4개 공업계고등학교에서 각 1명씩을 선발하여 목포전문대학 2학년 윤현준군 등 10명에게 총 5백 4십만원(전문대 7십만원, 고등학교 3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는 건축계의 우수한 후배양성과 사회봉사활동을 펴는 일환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건축사회는 작년도도 8명의 학생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부산통합역사 국제현상설계 당선작 발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 김한중)은 지난 9월 25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통합한 부산역사 국제현상설계 당선작으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권원과 영국 니컬러스 그림소사의 공동설계안을 선정, 발표했다. 당선작은 시설배치가 합리적이고 여객대합실내 기둥이 없는 시원한 공간구성이 돋보였으며 특히 2천 8백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 확보돼 있어 효용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주)삼우설계, 창립2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주)삼우설계가 창립 2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유럽현대건축가 4인을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가졌다.

지난 2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건축업계 및 학계 그리고 관련단체의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대건축의 발자취가 일천한 한국의 건축문화의 발전과 세계적 수준으로의 도약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현대건축의 최근 경향과 세계화'라는 주제로 유럽의 대표적 건축가 4인을 초청하였는데, 초청된 건축가로는 영국의 Terry Farrell, 네덜란드의 Rem Koolhaas, 프랑스의 Jean Nouvel, 스위스의 Mario Botta 등 현대 유럽의 건축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중견건축가이다.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은 발제강연에서, 1.2차 세계대전을 거친후 폐허속에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여 70년대 중반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

과 80년대부터 세계건축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럽의 건축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어 Terry Farrell의 'Contextualism과 Global Culture', Jean Nouvel의 'Speciality에 관하여', Mario의 '주거와 종교, 그리고 전시를 위한 디자인의 주제강연이 이루어졌다.

유럽건축가 4인의 강연이 끝난후 collaborative project 발표회가 있었으며, 삼우설계 조주환 소장의 사회로 서울대 심우갑교수, 성균관대 임창복교수, 정림건축 박승홍 소장의 토론 및 질의 시간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마감했다.

유럽현대건축의 현장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현대건축의 디자인 철학과 그 흐름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져, 한국현대건축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기획,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유럽의 건축을 좀 더 가깝게 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주)공간 대표 장세양회원 별세

지난 9월 5일 (주)공간건축의 장세양 회원이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49세인 고 장세양 회원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77년 공간연구소에 입사한 이래 20여년 동안 (재)김수근 문화재단 이사,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건설교통부 중앙기술 심의위원회 등을 역임하였다. 수상경력으로는 국립대박물관 현상설계 당선, 경기도립박물관 현상설계 당선,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등이 있으며, 최근까지 방콕 출라롱콘 왕립대학 마스터플랜을 수주받아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인 바 있다.

대한민국예술원상 미술부문에 이광노회원 수상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조병화)은 지난 9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제 41회 예술원상 시상식을 가졌다.

예술원상은 국내 예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쌓은 예술인에게 주어지게 되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수상되는데 미술부문에서는 이광노회원(서울대 명예교수, 무예건축연구소 대표)이 선정되었다.

이씨는 서울시 문화상, 대통령표창, 대한민국 문화훈장 등의 수상경력을 지녔으며 건축가로서 6.25이후 많은 건축작품을 남겼는데,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국회의사당, 영남대학 본관,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회관,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수상자들은 시상식에서 상장과 휘장, 부상으로 2천만원을 각각 수여 받았다.

제 5 회 건축가미술전 열려



제5회 건축가미술전이 오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PLUS건축사옥내 화랑에서 건축가 미술동우회(이하 건미회)주최로 열린다.

건미회의 이번 전시회는 일반인들에게는 건축가들의 속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건축가들에게는 잠시라도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이 전시회는 화가들의 전문적인 그림장치가 아니라 건축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이 시대의 건축가들이 삭막한 세상 바깥 일 정속에서도 틈을 내어 순수한 감성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건미회 한창진 회장은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한창진 회장을 비롯해 20명의 회원이 출품작가로 참여하게 된다.

문의 : 557-9248